



광주 도시경쟁력을 높이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한 회사에 다니는 권경수(37)씨는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금남로공원에서 책을 읽는다. 점심을 가볍게 먹은 뒤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은 권씨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3년 뒤로 다가온 40대를 준비하고 있다. 권씨는 "정신없었던 오전을 정리하는 데 공원만큼 좋은 곳이 없다"며 "도심 속에 이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에 만

족한다"고 말했다. 도심 속에 녹색의 공원은 단순히 맑은 공기나 여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사색하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도시의 매력, 즉 경쟁력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전문가 제언

조용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우리가 매력적인 도시라고 하는 선진도시들에서 공통되는 것 중 하나는 감흥을 주는 광장이나 가로공간 등의 공공공간이 도시매력의 축이나 초점으로서 도시 활력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공간은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틀로서 이벤트, 참여, 기억, 공유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을 하나로 묶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자, 세대와 중첩되고, 문화가 중첩되며, 시대가 중첩되는, 도시문화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과 같은 도시 투어리즘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물론, 도시이미지를 만드는 원천이 되고 있다. 베니스, 프라하 등이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적 합리성과 경제성이 바탕이 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우리 도시들은 인구나 고용을 증대시키고, 개인적 부의 축적에 골몰하면서 공공공간은 무시되거나 사라져 갔다. 그 자리에 자동차나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가장 '인간적인' 골목길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거기에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마저 줄어들면서, 도시 커뮤니티는 해체되거나 약해지고, 따라서 지역수준의 공통문제에 대한 자율적·자발적인 처리 능력마저 크게 상실돼 버렸다. 다시 말해 사람냄새가 없는 도시가 돼 버린 것이다. 이같이 근대도시나 건축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경시하면서, 도시에서 사람은 소외되고, 도시 정체성 역시 크게 약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포피두센터를 설계한 리처드 로저스는 공공공간의 활기가 줄어들면, 거리에서 시민들의 참여 습관이 사라지고, 특히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시작된 거리의 자발적 규율이 보안 카메라 등으로 대체되는, 삭막한 결과를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공공공간에서 있어야 할 여러 행위들을 건축물 등의 일정한 사적 영역 안으로 내몰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외부와 답을 쌓고, 자기들만의 계층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도시문화의 붕괴는 물론, 양극화의 가속화로 인해 계층 간의 갈등심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오늘날 국제적 관광도시가 된 바르셀로나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각종 올림픽시설 확보를 비롯 도시 전반적 혁신을 단행하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전략적인 기본계획에 가로 정화, 150개의 새로운 공공공간의 설치를 포함시켰다. 또 파리가 포피두센터를 건립하려고 남게둔 부지 절반을 광장으로 사용했던 것, 그리고 세계적 디자인 도시로 불리는 요코하마가 광장 등 공공공간 확보를 중요한 도시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도시문화와 도시 공동체 체질로서 공공공간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은 앞으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본과 물질 투자가 바탕이 된 산업경제도시에서 사회적 자산인 지식과 창의력이 바탕이 된 창조도시로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적 사고나 평면 도시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형태 도시계획으로도 불리는 도시디자인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공공공간을 공유하는 의식을 확산 시키고, 도시문화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으로 다루는 일이다. 이제 광장 없이는 도시도 없다는 선진도시들의 가치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계층·문화 소통의 場, 공원·광장을 늘리자

1. 프롤로그
2.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중요하다
3.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
4. '공공프로젝트'가 미래 결정한다
5. 에필로그 - 전문가 좌담

주부 박소연(35)씨도 가족들과 매달 1~2번 금남로공원을 찾는다. 간혹 집에서 김밥을 싸 공원에서 먹고, 인근 영화관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박씨는 "시내에 나오면 딱히 하거나 할 곳이 없어 도시 외곽을 찾아가곤 했다"며 "이곳에 공원이 생긴 뒤로 시내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씨의 말에는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점차 시들어가는 구도심의 재생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구도심에 사람이 머무르고, 모이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면 설수록, 구도심의 상가에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 옛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지에 금남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2003년으로, 이때부터 사실상 광주의 공원 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도심 내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부지를 모든 시민의 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옛 전남도지사공관은 삼복공원으로, 옛 기무부대



금남로공원은 그동안 공원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값비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지에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에는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심 공공기관 이전지 공공공간 조성

광주 공원 정책 전환점 된 금남로공원

구도심에 활력 주고 도시 이미지 높여

는 5·18역사공원으로 탈바꿈 했다. 또 광주 도심 녹지의 핵심인 광주공원을 조성된 뒤 점차 축소됐다가 아시아문화커뮤니티공원 신규 조성 등으로 최근 처음으로 그 면적이 대폭 늘어났게 됐다.

'공공기관 이전지 공원 조성'은 따라서 도시 내 공공공간, 특히 공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광주시가 지난 2005년 10년을 목표로 시작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도시에서 나무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켰다는 점, 기존의 가로수 개념을 뛰어넘어 교통신 등 비어있는 공간으로 식재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숲 속의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다. 올 상반기까지 모두 701만 그루가 식재돼,

이제 시민들도 도심 곳곳에서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통계수치는 없지만, 도심 공기는 물론 시민들의 시각적 조망도 크게 나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회경루나 광주향교 등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이나 접근성 향상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같은 공원과 나무, 더 나아가 숲, 역사문화자원 등에 공공의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이곳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이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여유를 선사하며, 도시 자체의 창조력을 높이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시도는 잊혀졌던 그 도시의 특징을 되살리고, 그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성'의 회복은 과제로 남아있다. 그 공간이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책임은 행정기관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나 담배꽂초, 술병 등이 널려 있는 공원의 모습은 결국 시민 자신의 얼굴이기도 하다. 또 곳곳에 조성되는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엇인가를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공연이나 미술전시회, 혹은 게임시장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공공공간은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재규경찰학원의 열정

김재규경찰학원의 열정적 신뢰는 계속됩니다!

김재규

광주김재규경찰학원

중은위지(약원가) 임대

- 약원, 또는 사무실 적합(주파사설 20대)
- 현대식 도시가스, 냉·난방기 시설완비
- 최장한 임대료 - 공과금, 관리비 포함

면적

1층·도도	2층	3층	6층
100평	110평	110평	80평

4층 주차장(월 1000원)

임대주소: 동구대동동(동부서 뒤, 동영영동 앞)

중앙 B/D

☎ 222-4560

☎ 011-666-0229

계좌지특별과정

2009.10.01

개인소득세 200% 교육비저점

PERI Start! 10%!

중영IT직업전문학교

☎ 223-0050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중영IT직업전문학교

☎ 070-7437-0594